

# 한국은 '왜' 라는 질문이 죽은 사회

강사 : 홍세화 (언론인 · 소설가)

일시 : 2010년 2월 24일

주제 : 생각의 좌표

장소 : 템플스테이통합정보관 3층 문수실

주최 :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데카르트 Descartes)라는 명제를 떠나서도 우리는 사유하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홍세화 씨는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라는 의문을 가지라고 제안한다.

“사회에 안주하려는 자신을 합리화 하는 것이 아닌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진정한 자유인의 의미를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조건지은 보잘것없음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세종시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이 사회를 점검하고 불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2월 24일 홍세화 씨의 강연을 마련했다. 홍씨가 말하는 ‘나와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방법’과 ‘내 생각의 주인이 되는 법’을 듣는다.

## #내 생각이 어떻게 내 생각이 됐을까?

사람은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쉽게 물음을 순화시키면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됐을까?’라는 의문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능만을 갖고 태어났지만 지라면서 수많은 욕망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하는 생각이 어떻게 내 생각이 됐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독서와 글쓰기는 사람을 정확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글쓰기 교육은 사라진 듯합니다. 우리 교육은 초·중·고 때는 입시교육, 대학은 직업교육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프랑스와 북유럽을 보면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사회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쓰라’는 질문을 합니다. 학생은 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책을 읽고, 친구들과 토론을 합니다. 또, 자문을 구하기 위해 부모님 등과 대화하는 기회를 늘려 갑니다.

이처럼 교육은 여러 사안에 대해 학생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피력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 나름의 논리가 얼마나 풍부하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교육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사회화 과정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친구, 학교, 이웃, 읽은 책 등은 그 사람의 사고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의문의 꼬리는 결국 자신에게로 귀결됩니다. 때문에 나의 의식체계를 점검하는 것은 한국사회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정말 어떤 삶인가?” “어떤 경로로 내 생각이 내 생각이 됐나?”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경로의 첫째는 독서입니다. 둘째는 토론이고 셋째는 여행입니다. 여행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의미 있습니다. 넷째는 이 세 가지를 아울러서 성찰하는 것입니다. 성찰을 통해 의식체계 안에서 다루고 자신만의 체계를 잡아갑니다. 이것을 통해 주체적인 의식 형성이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에 반하는 것은 ‘제도교육’과 ‘미디어’의 영향입니다.

장기화된 제도교육은 문제를 찾아내기보다 주어진 것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미디어는 대중에게 기여한 점도 있지만 한 가지만 생각하게 하는 등 단점이 많습니다.

1970~1980년대 사람들은 비교적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해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부분에 많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채우려 배움의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이 알고 노력했죠.

현대인은 보고 들은 것이 많아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인정하려 들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체계는 자립적인 인간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토론수업을 하면 등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사회가 주는 의제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질문을 해와도 “크면 다 알아”라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사회는 ‘왜’ 라는 질문이 죽은 사회입니다. 이는 가부장적 문화와 ‘빨리빨리’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키케로(Cicero, 로마 철학자)는 “논리로 안 되면 인신을 공격하라”고 말했습니다. 반어법으로 말한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키케로의 반어법을 따르는 성실한 제자와도 같습니다.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나이를 묻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 모습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보면 당시의 지식인들은 중국에서 하나라도 더 달리고 치열하게 공부·탐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디어를 통해 욕망체계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한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은 지배층의 이념입니다. 암기라는 지배계급이 준 또 하나의 자본논리가 한국사회를 특징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왜 우리는 소수파에 들게 됐을까요? 모두 연결이 됩니다. 20대 80의 사회라고 말하는데, 왜 80%의 사람들이 나머지 20%에게 지배당할까요?

콜롬버스의 달걀을 발상의 전환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달걀을 깬다는 것은 ‘폭력적 발상’입니다. 우세주의의 현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콜롬버스의 달걀을 예로 들자면, 그 깨진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느낍니다.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추락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왜’ 라는 질문이 사라진 것은 과도한 경쟁으로 ‘불안’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에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틀스토이는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바로 지금’에 집중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오지도 않는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에 휩싸여 주변사람에게 성실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다면 참담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오늘의 나에게 성실 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합니다. 불안의 정도가 낮고 가능성이 열려있

는 사회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육·양육, 건강, 주거, 노후, 일자리의 요인이 해결돼야 가능합니다. 프랑스에서 박사과정 1학기 등록금은 한국 돈으로 55만원입니다. 의료보험, 교육비 등이 국가제도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생활도 안정적입니다.

## #인간 존엄성 보장되는 사회

이제는 문화적인 사회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엄청난 경쟁을 하다 보니, 감성은 점차 메말라 갑니다. 소유가 강조되는 현실에서 인간성 훼손까지 초래했습니다. 제가 1979년 프랑스에 이민 갔다가 1999년 서울에 돌아왔을 때 당시의 화두가 “부자 되세요”였습니다. 그 광고 문구가 지나가는 전광판을 보면서 혹시라도 “마음의”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한참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이어진 화두가 “당신 이 사는 곳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준다”는 말이었습니다. 참된 사회는 이웃에 대한 상상력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을 염두했다면 그런 말이 유행처럼 퍼져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인간성이 훼손된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정치적 힘으로 보면 소유구조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의 시조인 아테네에서는 다중지배, 서민이 전제하는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왜 기득권의 생각이 지배하게 됐을까요?

프랑스 지식인들은 자신이 공부할 때 국가의 혜택을 봤으니 이제는 돌려주는 의미로 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죠. 하지만 한국 사회는 경쟁을 부추길 뿐입니다. 국가도 그 몫을 다 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사회와 국가에 대한 기대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4대강 사업도 큰 문제입니다. 생태위배(프랑스 소설가는 “자연은 우리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 자손에게 빌려온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사람·자연관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이 부재된 사회에서 개인의 가치관 정립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인이 소박하게 오늘에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공공성(Republic)이 실종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공화국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정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 전 손복을 교회의 김성광 목사 발언은 사익 추구에 종교를 얹은 모습입니다. 현재 한국은 극보수가 집



홍세화씨는 끊임없는 자기성찰로 사회가 조건지은 ‘보잘 것 없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 과도한 경쟁과 불안이 질문 사라지게 해 “이웃에 대한 상상력과 배려있어야 합니다”

현대인은 문제를 제기할 줄 모르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줄도 모릅니다. 결국 제도교육 속에서 일부만 책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간이 있는 만큼 사회에 대한 물음이 나와야 하는데 한국은 전무합니다. 학교뿐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 있을 때 육아법에 관련한 책을 접했습니다. 책에 아이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엄마’와 ‘왜’라는 단어였습니다. 아이가 사용하는 특정 단어의 빈도수 차이가 그 사회의 문화 차이를 가져옵니다. 맑은 생각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궁금한 것을 엄마에게 물으면 성실한 대답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 # ‘왜’ 가 사라진 사회

한국에서는 반복질문이 없어야 합니다. 바쁜 사회에 살려면 그런 질문은 거뒀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권하는 사리추구 집단지행 뿐입니다. 저는 불교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불교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인간 존엄성 등에 대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4만여 다문화가정자녀들을 우리사회가 어떻게 보듬을 수 있을지 숙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들에게 사회적 관심을 소홀히 했다가는 훗날 미래의 꿈나무를 사회적 시한 폭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불교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내 생각의 기원을 찾으면 모두가 함께인 사회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리=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 불기 2554년 경인년 부처님 출가제일 기념 민족 화합 평화기원 불교도대법회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6대 임원진 취임

• 일시 : 2010년 3월 23일 (음, 2월 8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충북 옥천 IC 입구 명가 연회장

### 귀의 삼보하옵고

만물이 생동하는 경인년 새봄을 맞아 부처님 이름으로

2천만 불자의 안위를 기원합니다.

각급의 대한민국은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과 혼돈이 점철되어 세간에서는 국기가 흔들리는 염려할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 이제 불교가 다시 국난극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신라 고승 원광법사의 세속오계를 거울삼아 호란과 왜란을 물리친 승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의 국난을 극복하는데 사부대중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지금까지 오메불망 불국정도 구현을 위해 원력을 다저은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는 국난극복과 더불어 제2의 불교중흥을 위한 대법회 법석을 마련코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불교중흥과 국가 발전을 위해 큰 원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주최 :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세계불교승왕청 CBC108. TV연합불교방송 일봉신문사

■ 문의 : (02)837-2003, 011-356-3427

### ◆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6대 임원진 명단 ◆

- 총재 : 세계승왕 인왕 신판석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 부총재 : 보리현광 (대한불교달마선종 종정), 청원박수용 (대한불교불광종 종정), 법각지오 (대승불교조계종 원로원장), 안신풍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 회장 : 의륜서주범 (근본불교조계종 창종주)
- 부회장 : 법진신승도 (호국불교효예종 종정), 청암도한수 (충남불교조계종 종정), 만주조성수 (한국불교대불종 총무원장), 심향법장 (한국불교교구산신문화 회장), 연화덕산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총무원장)
- 자문위원 : 대천문연우 (한국불교지장조계종 종정), 월담성인 (세계불교화엄종 종정), 향덕박승익 (대승불교조계종 종정)

### 회원

- 법안 이기욱 (통합불교아미타종 종정대행)
- 청산 성운 (대한불교천인종 종정대행)
- 일웅 김철우 (한국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 법정 구철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은곡 조병남 (한국불교극락조계종 총무원장)
- 원각 한경수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장)
- 해광 문동춘 (대승불교달마종 총무원장)
- 대성 김영기 (대한불교대성종 총무원장)
- 해광 전충열 (한국불교자비종 총무원장)
- 원공 유명근 (현대불교기록종 총무원장)
- 안심 박영주 (종단세계선불교 총무원장)
- 해륜 백신권 (해동불교임계조계종 총무원장)
- 해봉 김일석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 덕정 이형덕 (대한불교참수행정각종 총무원장)
- 청담 윤문봉 (한국불교내외종 대표)
- 법정 덕암 (대한불교정법종 종정)
- 지법 반동환 (대한불교지법태고종 총무원장)
- 해덕 월명 (대한불교여래조계종 대표)
- 관행 정숙자 (대한불교관음성종 대표)

\*연합불교방송/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홈페이지 참조